

오수(獒樹)의 개

김동일/이사·소방기술사

국보 제1호는 “남대문”, 보물 제1호는 “동대문”이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는 “종묘 제례악(宗廟祭禮樂)”이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 있다.

개는 인간에게 충실하고 의리 있는 가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추천설화가 많다.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새자 개의 코로 그 틈을 막았으며, 그 후부터 개의 코가 차가워졌다는 전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도 경북 선산과 경남 하동의 의구총(義狗塚), 충남 부여의 의구탑(義狗塔) 등과 같이 화재 또는 흑한으로부터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의 전설이 담긴 유적이 많다.

사흘만 기르면 삼년 동안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동물이 한국의 개다. 그 한국 개의 주인에 대한 충직도는 상대적으로 진하다.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獒樹)에는 의견비(義犬碑)가 서있다. 이 마을에 한 노인과 개가 오묘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노인이 이웃마을 잔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다. 때마침 들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오고 있었다.

주인 가까이 불이 타 들어가자 개는 위태로워진 주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냇물에 몸을 적서 주인의 몸과 불 위를 당굴어 주인은 구했으나 탈진한 개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개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노인은 개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 대신 지팡이를 꽂았더니 신기하게도 거기에 싹이 터서 큰 나무로 자랐다고 한다. 이 곳의 지명도 개獒, 나무樹, 그래서 “오수”가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보면 백제의 멸망에 앞서 사비성의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슬피 울면 집안에 초상이 난다고 하여 개를 팔아 버리는 습속이 있다. 또, 개가 이유 없이 땅을 파면 무덤을 파는 암시라 생각하여 개를 없애고 집안이 무사하기를 빌며 근신하였다고도 한다.

유가(儒家)의 경우, 예를 가장 중시하는 향음주례(鄉飲酒禮)에 개고기가 술안주로 나오는 점을 미루어 이를 멀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가(佛家)에서는 개고기를 금기시한다. 저승길을 관장하는 삼목(三目)대왕이 눈이 셋 달린 개로 환생한 것이라는 설화와 연관 짓기도 하지만, 사찰이 대개 산 속에 있으므로 개고기를 먹고 절에 가면 그 냄새 때문에 호환(虎患)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속신으로 더욱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오랜 세월을 사람과 같이 살아온 개는 동과 서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忠僕)의 상징이다. 더욱이 우리 선조들은 개를 인간과 상통하는 영감적인 동물로까지 보아 왔다. 의로운 개의 고장 오수 역에서 5백 미터 남짓, 아이러니 하게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철탕집이 성업 중이다.